

# 광주시, 미얀마 '88항쟁' 유네스코 등재 돕는다

### 기념관 측 요청으로 2명 파견 5·18세계기록유산 경험 전수 "민주인권도시 위상 높일 것"

광주시가 미얀마 '88항쟁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미얀마의 88기념관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험이 있는 안종철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 이덕재 기록관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 이덕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등 2명을 미얀마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88항쟁은 1988년 8월8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곤 대학생들과 승려, 시민 등을 미얀마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3000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기록관은 88기념관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험이 있는 안종철 전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 이덕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등 2명을 미얀마에 파견했다.  
이들은 먼저 현지 관계자들과 논의해

33인으로 구성된 '88항쟁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추진위'(대표 민꼬나이·당시 학생항쟁지도부 대표)를 발족했다. 대표 민꼬나이는 지난 2009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흠어져 있는 당시 유인물, 사진·일기장, 군인들이 사용한 대검, 시위대 깃발, 병원 치료기록, 공공기록물 등을 추가 수집하기로 협의했다. 안 전 단장과 이 연구사는 지난 8월 미얀마 양곤 다마비아사원에서 열린 88항쟁 29주년 행사에 참석, 민꼬나이 대표 등 참석자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파견을 통해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이자 5·18세계기록유산의 선도 도시로서 광주의 유네스코 등재 노후와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마감에 이르기까지 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나간채 관장은 "미얀마 양곤 88항쟁 인권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활동은 미얀마인들의 민주화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도시공원위원 '공모 원칙' 어겼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건설 단체 추천 요청 부당"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심의하게 될 광주시의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과정에 '공개모집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건설관련 단체를 포함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이라며 "이번에 구성될 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또 "조례상 '공개 모집하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추천'이 원칙이지만 광주시는 공개모집 원칙을 위해, 지난 8일 관련 협회 등 12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공공성에 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익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자문·심의하는 공원위원회에 포괄적 이해 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5곳(11km)이다. 시는 이 중 민간공원 10곳(958만m)에 대해 70%는 기부 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확보하고, 30%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히로시마 원폭돔서 평화 염원 광복절을 앞둔 13일, 일본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원폭돔에 방문객들이 붐비고 있다. 이 원폭돔은 1945년 8월6일 미국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투하해 폭발한 원자폭탄의 충격 속에서도 견뎌낸 건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핵폭탄의 피해를 경고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꼽히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5개 공기업 인사카드 인권침해"

### "학벌 없는 사회" 진정서 제출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학력사항은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신채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를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관계와 재산 등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 병역관계와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하지만 "이 같은 신상 관련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학력사항은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할 우려가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신채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이 수치를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관계와 재산 등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가능성, 병역관계와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우선협상자 이달 말 결정

광주지역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13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광주시가 조달청에 공모를 의뢰한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1차 협상자)가 이달 안에 오는 30일까지 정해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 10일까지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평가기준 점수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달청 의견에

따라 배점기준을 다시 마련하면서 10여일 지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조달청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자로 낙점되며, 이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인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곡선반경과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타결 시점으로부터 사흘 안에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업체 측은 발주처 요구에 맞춰 2019년 6월까지 차량 제작설계를 마친 뒤 2024년까지 3년

계로 거쳐 차량을 납품하게 된다.  
또한 차량과 신호 분리발주 방침에 따라 차량과 검수시설을 뺀 신호 등의 분야도 다음달 안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토목과 궤도 분야 공사 실시설계도 최근 착수한 상태다.  
1340억원이 소요되는 차량과 검수시설은 업무연관성이 큰 만큼 하나로 묶어 발주하고 나머지 신호와 전기, 통신, 스크린도어 등도 호환성과 연관성을 따져 부분적

으로 통합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 41.9km의 순환선이며 3단계로 나눠 시공된다. 전체 구간 중 4.2km는 지상 노면으로 건설되고 지하 구간 중 28.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각각 건설된다. 2조579억원을 들여 1단계 구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은 2023년, 2단계(광주역~첨단~수완~시청)는 2024년,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축산물가공업소 7곳 위반 적발

광주시는 13일 "최근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관내 95개 업소 중 68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됐다.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적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품 자가검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수

거검사 부적합,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각각 1건 등으로, 위반업소는 모두 식육가공업소였다.  
위반업소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육가공업소(400kg)는 폐기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육가공업소 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육(살은 내장) 1건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20kg)을 폐기 처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